**착하고 충성된 종**

**마 25: 14-30 595**

**들어가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 고대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아주 어렵고 수준 높은 헬라어가 아니라 평민들이 시장통에서 사용하던 헬라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지중해 인근의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갈릴리 변방에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씨 뿌리는 농부와 밭 등 누가 들어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느 때보다 청중들의 눈이 반짝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갖고 있는 돈, 투자, 수익 환수 같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주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관심이 가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한 몇 년 전까지 우리 나라에서 주식 투자의 광풍이 불었습니다. 20대 젊은이들까지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대박 이야기, 쪽박 이야기를 주위에서 흔히 들었습니다. 물론 초반 대박에서 막판 쪽박으로 끝난 이야기가 제일 많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주식에 투자한 사람의 가장 큰 관심이 뭘까요? 얼마나 수익을 많이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의 사장님이 착한 일을 많이 한다거나 그 분의 인품이 훌륭하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만 하고 그래서 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이게 중요할 겁니다.

이렇게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눈으로 오늘 비유를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게 수익을 올린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100%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왕이면 더 많이 투자해서 더 많이 수익을 올린 사람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일 잘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사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수익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원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사람에게 그럴 거면 차라리 은행에 넣어 두었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것 아니냐고 꾸중했습니다. 그렇죠. 요즘 저축 은행 같은 곳에 넣어 두면 4.2% 이자가 나오는데 왜 그걸 그냥 두었냐고 한 거죠. 여기까지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인이 생각하는 게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좀 특이한 점이 눈에 띕니다. 우선 본문을 할애한 분량이 다른데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20절과 21절 두 절에 나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도 22절과 23절에 두 절 나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24절부터 30절까지 무려 일곱 절에 걸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의 강조점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수익을 못 남긴 사람에게 주인이 너무 가혹하게 말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은행에라도 넣어서 이자라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안 한 종이 그래도 한 달란트를 까먹지 않고 원금을 잘 지켰는데 이 종에게 주인이 하는 말을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를 향해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한 달란트 마저 빼앗아서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몰아주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30절에 보면 정말 심한 말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 종은 결국 쫓겨나는데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되는 정말 절망스러운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종은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는 겁니다.

주인은 왜 이렇게 이 종에게 화를 내는 걸까요? 그는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무익한 종이라는 소리를 듣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쫓겨납니다. 이 종이 잘한 건 없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을 맞아야 하나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1. 한 달란트 vs 다섯 달란트**

우선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멀리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야 할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 때 그는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금 두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종에게는 금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세 명에게 똑 같이 주지 않고 각각 다르게 주었습니다. 두 명은 그런대로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마지막 한 사람은 겨우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아십니까?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금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20년간 받을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요즘 받는 연봉이 3천-6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20년간 받으면 6억에서 12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계산 하기 좋게 한 달란트가 요즘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약 10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절대로 조금 받은 게 아닙니다. 모두다 어마어마한 돈을 위탁 받은 거였습니다. 물론 제일 많이 받은 종은 50억 정도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몇 천 만원 정도 주면서 열심히 해서 수익을 남겨 보라고 한 게 아니라 거의 주인의 전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만큼 이 종들을 믿어 주고 기회를 주었던 겁니다.

자, 그럼 누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누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일까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는 누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누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일까요?

우선 누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누가 그 엄청난 걸 받고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인에게 책망을 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태복음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에게 가장 혹독한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주로 누구였던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받은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시대의 가장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도 없었고 율법을 접할 수 도 없었는데 이들은 성전에서 일 했고 율법을 가장 열심히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해서 책망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그들의 삶을 추론해 보면 절대로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문 613가지를 정말 열심히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장 혹독한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핵심은 온데 간데 없고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것 정해서 지키고 십일조를 철저히 드리기 위해서 박하와 회향 같은 얼마 안 되는 것까지 10등분 해서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열심을 낸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를 쌓고 대신에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잘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가장 게으른 사람이었고 가장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100배의 결심을 맺는 밭처럼 정말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갈릴리 변방에서 고기 잡던 무명의 어부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열렬히 반응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한 가지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 달란트 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talent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분 하나님께 참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할 때 그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재물이 있거나 좀 더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니까 남들 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학벌도 없고 특출한 재능도 없는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았지만 주님께 열심히 충성 해서 한 달란트라도 남기는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정 반대인 겁니다. 정말 많은 재능을 가졌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고 많은 권력을 쥐고 있었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걸 땅에 파묻어 두었던 사람들처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든 사람들, 남들이 볼 때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오히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돈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 사람이 가진 그 많은 것들은 달란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들이 가진 것들이 정말 귀한 달란트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 별로 가진 것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사람들이야말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달란트는 재능이나 특별한 은사에 한정된 것이라기 보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게 해 주는 모든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만일 내가 더 많은 지식과 경험, 내게 있는 재물을 하나님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은 소중한 달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병이 드는 바람에 정말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달란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면 실패도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한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성공도 실패도 부유함도 가난함도 건강도 병듦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가끔씩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 해서 명문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얼굴도 잘 생겼어요. 게다가 운동도 잘 해요. 노래를 부르는데 와 성악가 뺨 치는 실력이에요 게다가 피아노도 칠 줄 알고 사업도 잘 해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 쓰면 이 사람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해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가진 모든 걸 다 합해도 아무 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심지어 몸이 병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받아서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그것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받게 될 것입니다.

**2. 주인에 대한 불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그가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걸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수익을 못 낸 건 나중에 나타난 결과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종은 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습니까? 우리 같이 **24-25절**을 읽어봅시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이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인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굳은’ 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굳은, 단단한, 완악한’ 같은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말을 의역하자면 이런 겁니다. **“주인님 당신은 정말 완악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보려는 사람이에요. 내가 행여 당신이 맡기신 한 달란트에 손해를 끼친다면 당신은 저를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무서워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내 돈을 투자한다면 투자해서 수익을 거두면 그만입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의 도덕성이 어떤 지 그 사람들이 소비자를 사랑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게 수익만 많이 가져다 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뭔 지를 드러내십니다. 그건 단지 수익을 못 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주인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책망 받았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핵심 알맹이는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건 단지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거지 그것과 주님의 일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자기 같은 종놈을 믿고 1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맡겨 준 주인의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고백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딤전 1: 12)**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이 귀한 직분 맡겨 주시고 주님의 사명 감당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사라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일 하는 거고 그건 결국 주님 보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반면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자기들을 믿고 맡겨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에 최선을 다해서 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 외에도 착한 종이라는 평가를 같이 받았습니다.

**3. 주인이 돌아올 때**

오늘 이 비유를 볼 때 유의할 점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처음에 주인이 떠날 때가 있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떠날 때는 해야 할 일을 말해 주었고 돌아올 때는 그것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점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지금 주님의 초림과 재림 그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으로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우리에게 축제가 되는 이유는 그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혼자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와 함께 하는 일이 훨씬 더 힘들 겁니다. 아빠가 혼자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쉬운데 두 돌 지난 아들이 도와준답시고 아빠 짐에 매달려 오면 사실은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도 아빠는 우리 아들 고맙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일을 감당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속에서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감격이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 불신과 두려움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도 지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교만해졌다가 낙심했다가 그 둘 사이를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일을 하긴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 같아서 두려움 속에서 억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일을 하는 건 지금 당장에도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았다. 이제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다. 너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될 거다 라고 하셔야 하는데 이 무익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초림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을 보내시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남들이 볼 때 내놓을 만한 대단한 것 없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그게 바로 주님의 칭찬 받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고난이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고난이 아니라 더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가까이 갈 수 만 있다면 이 고난이야말로 여러분을 다섯 달란트 받은 충성된 종으로 세워가는 소중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보내면서 먼저 주님께서 처음 오셔서 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 앞에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